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4, 765-778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박 지 아†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이는 적응 유연한(resilient) 청소년들의 심리내적인 특성을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초, 중, 고등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위험요소에 노출 여부와 교사, 또래, 자기 평정에 따른 적응 수준을 고려하여 적응유연 청소년(30명), 고위험 청소년(39명), 유능 청소년(40명)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 간에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부모 애착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은 고위험 청소년들에 비해 실존적 안녕과 부모애착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이들 요소가 보호요소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부모 애착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적응 유연성, 영적 안녕, 부모 애착, 청소년

† 교신저자 : 박 지 아,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311호
전화 : 02-878-8970 E-mail : happyhelper@empal.com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부적응 증상에 주목하여 부적응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들을 연구해왔다. 이런 위험 요소 모델 연구들에 따르면 부적응 청소년들은 적응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었으며 결손 가정이거나 부적절한 양육을 받는 등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국선, 장성숙, 2001).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 모델로는 높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동,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청소년 개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Garmezy, 1971; Rutter, 1979; Werner & Smith, 1982).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고, 탄력있게 적응해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최근 연구의 주된 흐름은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 매개해 주는 보호요소가 무엇이며,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탄력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지 그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양국선, 장성숙, 2001).

적응 유연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능력이다(Garmezy, 1993). Masten(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적응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명백한 위험요소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적응과 발달의 질적인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응 유연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적응과 발달에 있어서 부적응 증상과 부적응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위험과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어떻게 탄력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위험요소는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변인(Pollard, Hawkins, & Arthur, 1999)이다. Pollard 등(1999)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빈약한 이웃 애착, 경제적 낙후성, 약물 오·남용 및 높은 범죄율 등이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의 하락 및 부진,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감, 전학, 따돌림 경험, 교사들의 무관심 또는 폭력 등이 위험요소로 발견되었다. 가족 영역에서는 가족의 비행경력, 경제적 결손, 가정불화, 구조적 결손, 부정적인 양육태도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다. 개인 영역에서는 감각적·충동적 성향이 강함, 문제행동의 조기 시작, 어려서 싸움을 잘 했음, 감정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위험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경우, 각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고 매개하는 보호요소 종류와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기존연구들의 한계점(Masten, 2001)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가정관련 위험요소만을 고려하였다.

한편 청소년 비행과 위험요소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요소의 중재를 받

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지승희, 이은경, 2001). 즉 보호요소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을 말한다(박현선, 1998; Garmezy, 1985; Rutter, 1979). 기존의 연구들(Bogenschneider, 1996; Garmezy, 1993; Gore & Eckenrode, 1996; Pollard, Hawkins, & Arthur, 1997; Werner, 1989)에서 밝혀진 보호요소로는 개인적 측면(지적 능력, 자기 가치감, 통제에 대한 내적 초점, 비난에 대한 외부 귀인, 문제해결 기술, 목적의식, 낙천주의, 희망, 종교적 믿음 등), 가족관련 측면(높은 가족 애착, 온정성, 응집력, 조부모와 같이 부모 대신 돌보아주는 성인의 존재 등), 학교관련 및 사회적인 측면(긍정적인 학교 경험, 외부적 지지체계 존재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유효한지, 또 이러한 연구자료들이 활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는 문화적 타당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Grotberg(2001)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27개 국가간 적응 유연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있어서 의미있는 문화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임상 · 상담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영성(Walsh, 1999)과 집단주의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부모애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보호요소로 지적된 종교생활(Bogenschneider, 1996), 종교적 믿음(Werner, 1989) 및 종교적 신앙심(Benson, 1998)의 개념을 포함한 영적 안녕과 부모애착(Benson, 1998; Werner, 1989)이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또한 밝혀진 보호요소와 위험요소의 역동성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적 측면은 임상 · 상담분야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으며(Walsh, 1999), 또한 최근 전인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개인의 신체,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적 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종교적 안녕이라 하며, 이것은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영성의 수직적 차원은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수평적 관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 양식을 통하여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최근 발달의 생애 지향적 접근은 애착 연구에도 반영되어, 초기 영유아 시기의 애착 연구를 넘어 이제 청소년기 부모-자녀간의 애착 연구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적응의 실마리를 애착관계에서 얻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백지숙, 2000). 부모 애착과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도(권지은, 1998),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내 정서적 유대로서 부모의 지지(Werner, 1989), 적어도 한쪽 부모와의 좋은 관계 형성(Benson, 1998)이 각각 위험요소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완충하는 보호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성과 부모애착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Ellison과 Paloutzian(1978)은 영성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나누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국내연구에서 보호요소로 밝혀진 바 있으나 영적 안녕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호요소로 밝힌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서구 문화권과는 달리 한국에서 적응 유연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부모애착 특성을 이해하고, 영적 안녕과 부모애착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기대되며,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전략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수준에서 적응 유연한 청소년과 유능 청소년 및 고위험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적응 유연한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기준은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은 비슷한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평균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소 수준으로 한 가지 이상의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둘째, 적응 수준으로는 교사, 또래, 자기 평정 3개의 점수 모두 상위 50%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응유연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 보호요소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교사, 또래, 자기 평정 3개의 점수 모두 상위 50% 수준의 적응수준을 보이는 유능 청소년 집단, 그리고 같은 종류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으나 교사, 또래, 자기 평정 3개의 점수 모두 하위 50% 수준의 적응수준을 보이는 위험 청소년 집단을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및 부모애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료를 제외한 34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44명 중 초등학생은 64명(18.6%), 중학생은 62명(18.0%),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 63명(18.3%), 공업계 고등학생 79명(23.0%), 상업계 고등학생 76명(22.1%)이었으며, 남학생은 162명(47.1%), 여학생은 182명(52.9%)이었다.

또한 344명의 청소년을 위험요소와 적응수준에 따라 적응유연 청소년 30명, 고위험 청소년 39명, 유능 청소년 40명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109명의 청소년을 실제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Paloutzio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한 뒤 예비조사 후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종교적 영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 및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안녕 문항(예: 나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은 10개의 홀수 문항이고, 실존적 문항(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은 10개의 짝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부터 6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이며, 총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20점이다. 1, 2, 9, 12, 13, 18번 문항이 부정적인 진술로 되어있어 역채점되었다. Ellison(1983)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 종교적 영적 안녕의 신뢰도는 .96, 실존적 영적 안녕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이었으며, 종교적 영적 안녕의 신뢰도는 .90, 실존적 영적 안녕의 신뢰도는 .87 이었다.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부모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한 뒤, 예비조사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부모애착 척도와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또래애착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부모애착 척도만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28개의 문항(예: 나의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주신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부모애착 척도는 상호신뢰에 관한 10문항(α=.91), 의사소통 10문항(α=.91), 소외 10문항(α=.86)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부모애착 척도가 .90 이었다.

적응 척도 (Adaptation Scale - 또래평정, 교사평정, 자기평정)

적응 척도는 Kilmer, Cowen과 Wyman(2001)이 개발한 척도로 요인분석하여 추출된 아동 적응(child adaptation)을 번안한 뒤 이를 또래용, 교사용, 자기 자신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적응 척도는 10개의 문항(예: 이 친구는 행복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총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50점까지이다. 적응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또래 적응 척도 .74, 교사 적응 척도 .80, 자기 적응 척도 .85 이었다.

자료수집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 실시, 회수하였고, 교사용 적응척도는 각 학급 담임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한 뒤 회수하였다.

분석방법

위험요소 수준의 결정

가정관련 위험요소 측정을 위해서 Fergusson과 Lynskey(1996)이 개발한 가족 위험 요소 목록(Family Adversity Index) 측정 질문지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뒤 부모의 교육수준, 구조적 결손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위험요소를 분류하였다. 첫째,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둘째, 구조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부모 사망, 이혼, 별거 등); 셋째, 사회경제적인 수준 측정을 위해서 모(母)만 직업이 있거나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와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자녀, 무료급식 대상자로 보조를 받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위험집단 기준에 적어도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적응 수준의 결정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정한 적응을 함께 보았다. 또래평정은 같은 학급 친구들이 평정한 점수이고, 교사평정은 담임교사가 평정한 점수이다. 적응 수준의 결정은 또래적응 척도, 교사적응 척도, 자기적응 척도 3개의 점수에서 모두 상위 50%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경우를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또래평정, 교사평정, 자기평정 3개의 점수에서 모두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를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asten et al., 1999).

집단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Masten과 Coatsworth(1998)이 제시한 방법을 고려하여 적응유연 청소년 집단, 고위험 청소년 집단, 유능 청소년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연구는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평균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이는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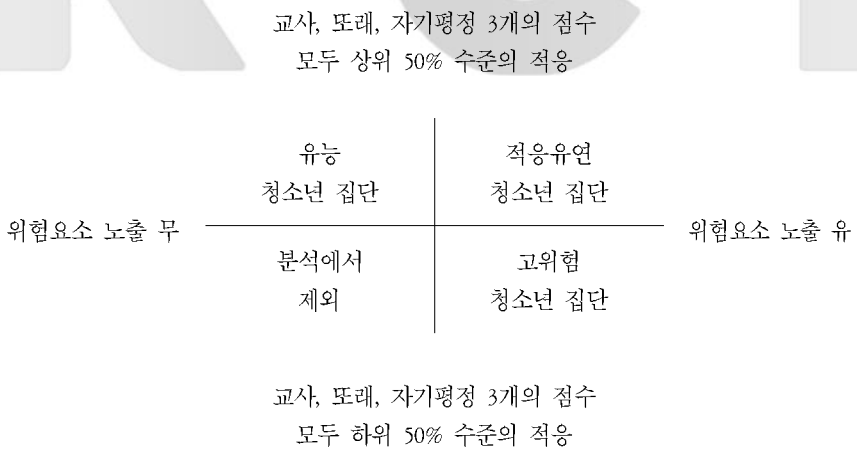

그림 1. 적응유연, 고위험, 유능 청소년 집단 분류

심리내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으로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교사, 또래, 자기평정 3개의 점수 모두 하위 50%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통계 분석

적응유연 청소년 집단, 고위험 청소년 집단, 유능 청소년 집단 세 집단 간의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및 부모 애착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척도 상호간의 상관분석에서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보았다.

결 과

집단 간 분포

344명의 청소년들을 위험요소와 적응수준에 따라 고위험 상황에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적응유연 청소년 집단 30명, 고위험 상황에서 낮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고위험 청소년 집단 39명, 저위험 상황에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유능 청소년 집단 40명으로 분류하였다. 세 집단 간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집단 간 종교적 안녕 차이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세 집단 간에 종교적 안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종교적 안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종교적 안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2, 106)=7.40$, $p<.05$]를 보였고, 사후 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능 청소년이 고위험 청소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적응유연 청소년과 고위험 청소년 및 적응유연 청소년과 유능 청소년간에는 종교적 안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 분포

변 수	집 단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
		N (%)	*N* (%)	*N* (%)
학 교	초등학교	8 (26.7)	2 (5.1)	20 (50.0)
	중학교	3 (10.0)	6 (15.4)	5 (12.5)
	인문계 고	4 (13.3)	3 (7.7)	6 (15.0)
	공업계 고	9 (30.0)	14 (35.9)	7 (17.5)
	상업계 고	6 (20.0)	14 (35.9)	2 (5.0)
성 별	남자	16 (53.3)	20 (51.3)	21 (52.5)
	여자	14 (46.7)	19 (48.7)	19 (47.5)
전 체		30 (100)	39 (100)	40 (100)

주. $N=109$

표 2. 집단에 따른 종교적 안녕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보호요소	집 단	*N*	평균	표준편차
종교적 안녕감	적응유연 청소년	30	3.20	1.24
	고위험 청소년	39	2.81	.90
	유능 청소년	40	3.86	1.46
	전체	109	3.30	1.29

표 3. 집단에 따른 종교적 안녕에 대한 변량분석

보호요소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1)]
종교적 안녕감	집단간	2	11.18	7.40*	C>B
	집단내	106	1.50		
	전체	108			

1) 1 = 적응유연 청소년, 2 = 고위험 청소년, 3 = 유능 청소년
*p < .05

집단 간 실존적 안녕 차이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세 집단 간에 실존적 안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실존적 안녕 점수의 평균

표 4. 집단에 따른 실존적 안녕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보호요소	집 단	*N*	평균	표준편차
실존적 안녕감	적응유연 청소년	30	4.36	.73
	고위험 청소년	39	3.50	.93
	유능 청소년	40	4.89	.81
	전체	109	4.25	1.02

표 5. 집단에 따른 실존적 안녕에 대한 변량분석

보호요소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1)]
실존적 안녕감	집단간	2	19.44	27.54*	C>A>B
	집단내	106	.70		
	전체	108			

1) 1 = 적응유연 청소년, 2. = 고위험 청소년, 3 = 유능 청소년
*p<.05

과 표준편차는 표 4에,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실존적 안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2, 106)=27.54$, $p<.05$]를 보였다. 사후 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응유연 청소년($M=4.36$)이 유능 청소년($M=4.89$)과 고위험 청소년($M=3.50$)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응유연 청소년이 유능 청소년보다 실존적 영적 안녕이 낮았고, 고위험 청소년보다는 실존적 영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간 부모 애착 차이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세 집단 간에 부모 애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부모 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변량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 애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2, 106)=23.48$, $p< .05$]를 보였다. 사후 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응유연 청소년($M=3.81$)이 고위험 청소년($M=3.07$)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응유연 청소년이 고위험 청소년보다 부모 애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적응유연 청소년과 유능 청소년간에는 부모 애착의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다.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부모 애착간의 상관분석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부모 애착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부모애착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6. 집단에 따른 부모 애착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보호요소	집 단	N	평균	표준편차
부모 애착	적응유연 청소년	30	3.81	.52
	고위험 청소년	39	3.07	.77
	유능 청소년	40	4.05	.63
	전체	109	3.63	.78

표 7. 집단에 따른 부모 애착에 대한 변량분석

보호요소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1)]
부모 애착	집단간	2	10.20	23.48 *	C, A>B
	집단내	106	.43		
	전체	108			

1) 1 = 적응유연 청소년, 2 = 고위험 청소년, 3 = 유능 청소년

*$p<.05$

표 8. 보호요소간의 상관관계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부모 애착
종교적 안녕	1.0000		
실존적 안녕	.548**	1.0000	
부모 애착	.486**	.722**	1.0000

**p<.01

논 의

본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노출 유무와 적응 수준에 따라 적응유연 청소년 30명, 고위험 청소년 39명, 유능 청소년 40명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에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부모 애착이라는 보호요소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보호요소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영적 안녕과 관련된 결과는 적응유연 청소년은 고위험 청소년 및 유능 청소년과 각각 종교적 안녕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존적 안녕에서는 적응유연 청소년이 고위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능 청소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과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영적 안녕을 종교생활(Bogenschneider, 1996), 종교적 믿음(Werner, 1989), 종교적 신앙심(Benson, 1998)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안녕이 주요한 보호요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교적 안녕이 적응유연 청소년들의 보호요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 세 집단 간의 종교적 안녕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의 방향(유능 청소년>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실제적 종교생활의 여부를 묻는 항목을 첨가하여 종교 생활에 따라 종교적 안녕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의 여부와 종교적 안녕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종교적 안녕의 개념이 한국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보호요소로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실존적 안녕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영성의 차원으로, 적응유연 청소년은 고위험 청소년보다 실존적 안녕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적응유연 청소년들은 가정 환경상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삶에 대해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경로에 빠지지 않고 평균이상의 적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이 위험요소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유성경, 2000; Masten, 2001)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부적응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고난, 역경이 주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더 관대하고 합리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 애착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이 유능한 청소년들과는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위험 청소년보다는 부모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환경적인 위험요소에 처했을지라도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하여 환경적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유성경 등 2000),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도(권지은, 1998),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내 정서적 유대로서 부모의 지지(Werner, 1989), 적어도 한쪽 부모와의 좋은 관계 형성(Benson, 1998)을 각각 위험요소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적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모 애착과 종교적 · 실존적 안녕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안녕-실존적 안녕, 종교적 안녕-부모 애착 및 실존적 안녕-부모 애착간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Ellison et al., 1978)와 일치한다. Erikson(1963)은 인성발달 단계에서 출생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본 신뢰감이 신앙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하였고, Kirkpatrick(1999)은 신(절대자)과의 관계가 중심인 종교적인 신념과 행동을 실제 유아-애착대상 관계라는 애착 과정으로 명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 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종교적 안녕이 높으며, 부모를 안정기저(secure base)로 느낄수록 신(절대자)을 안정기저로 느끼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받을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은 실존적 안녕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들은 삶에 대하여 신뢰하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있게 지각하며,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 각각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 보호요소 간 남녀 성차 비교와 학년별 종단 비교를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려서 성별과 학년별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 문화 내에서 영적 안녕(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이 종교에 상관없이 나타나는지 '종교'라는 정보를 추가하여 한국 청소년들에게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적응유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영적 안녕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적응 수준을 결정할 때 교사,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적응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정한 적응을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적응 변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 서울: 한국교육학회.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지승희, 이은경 (2001).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연구 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Benson, P. L. (1998). *The troubled journey: A profile of American youth.*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Bogensch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38.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Pergamon.

Ellison, C. W., & Paloutzian, R. F. (1978). *Assessing quality of life: Spiritual well-be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August, 29.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247-274.

Fergusson, D. M., & Lynskey, M. T. (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281-292.

Garm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Pergamon.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Gore, S. & Eckenrode, J. (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m, N. Garmezy, M. Rutter, (Ed.),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ombridge University Press.

Grotberg, E. H. (2001). Cross-Cultural Perspectives: Resilience and Culture. *International Psychology Reporter,* 13-14.

Kilmer, R. P., Cowen, E. L., & Wyman, P. A. (2001). A micro-level analysis of developmental, parenting, and family milieu variables that differentiate stress-resilient and stress-affected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4),* 391-416.

Kirkpatrick, L. A. (1999). Attachment and Religious Representatios and Behavior. In Cassidy, J., & Shaver, P. 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Masten, A. S., & Coatsworth, J. D.(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es.

Pollard, J. A., Catalano, R. F., Hawkins, J. D., & Arthur, M. W. (1997).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survey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popula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E. Rahdert, D. C. & I. Amsel (Ed.). *Adolescent drug abuse: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pp. 7-38).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Walsh, F. (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Walsh F(Ed.), *Spiritual Resources in Family Therapy* (pp. 3-27). New York: Guilford.

Werner, E. E., & Smith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원 고 접 수 일 : 2003.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6
게 재 결 정 일 : 2003. 11. 28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4, 765-778

Relationship of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Ji-Ah Park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compared the resilient(N=30), the at-risk(N=39) and the competent (N=40) adolescents in their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344 adolescents and classified them into the three groups with a consideration of two criteria; being exposed to one of the family risk factors and their level of adjustment. Their adjustment was rated by themselves, homeroom teachers, and peer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Demographic questions, Spiritual Well-Being Scal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and Adaptation Scale.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e resilient adolescents showed higher level of existenti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compared to the at-risk adolescents. Bu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us well-being's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counseling for at-risk adolesc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parent attachment, adolescents